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신입교수에게 주는 의미 탐색

조용형 · 서영희[†]

(동부산대학교)

Seeking the Meaning of Microteaching Experience to New Professors

Yong-Hyung CHO · Young-Hee SEO[†]

(Dong-Pusan College)

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provide university authorities with substantial help in enforcing Microteaching to new professors based on qualitative study. The subjec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are eleven new professors working for D college located in Busan and the study lasted for ten months from May 2011 to February 2012.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 First, new professors took cognizance of Microteaching both as a burdensome task and as a teaching evaluation tool. Second, they had difficulties confronting their exposed teaching realities and accepting the results of teaching evaluation. Third, Microteaching contributed to the shift of professors' attitude from teacher's perspective to students' and the shift of their cognizance from the existing teaching attitude to the improved, innovative, and open teaching attitude. Lastly, this paper proposes that Microteaching enforcement should be made through professors' voluntary participation based on the change of professors' cognizance on Microteaching and Microteaching consulting should be a progress-oriented process rather than an evaluation-oriented process.

Key words : Microteaching, New Professors, Teaching Evaluation

I. 서론

교육의 질이 교사의 질을 넘어설 수 없듯이 대학교육의 질도 대학교수의 강의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 대학교수는 전문지식과 기술을 체계적으로 구조화하여 학생들에게 효과적으로 강의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때의 강의 효과는 교수자의 강의 기술과 밀접한 관계(김남희, 2009; 김현자, 2008; 신장미, 2008)가 있다.

최근 교수능력을 신장시키고 학생들의 학습만족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으로 각 대학은 마이크로티칭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마이크로티칭은 1963년 미국의 스탠포드 대학에서 교사양성교육을 위한 교수방법 훈련의 한 대안으로 등장(Allen & Ryan, 1969)하였다. 처음에는 주로 예비 교사들이 수업을 체계적으로 계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경험을 쌓기 위해 동료 학생들에게 수업을 해 보고 동료나 교수로부터 피드백

[†] Corresponding author : 051-540-3832, younghi90@dreamwiz.com

을 받는 형태(Nancy & Bell, 2007)이거나 교육실습생에게 요구되는 구체적인 수업 기술을 개발하고 개선시키기 위한 실습체계(유혜령, 1997) 형태였다. 그러나 동영상 녹화 장비가 발달하면서 모의 강의나 실제 강의를 촬영하여 분석하고 컨설팅 하는 보다 전문적인 형태로 발전하게 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마이크로티칭이 예비교사에게만 국한되지 않고 현직 교사들에게까지 확대 실시되고 있다. 그 이유는 모의 수업장면이나 실제 수업장면을 비디오카메라로 촬영한 후 강의 동영상을 보며 수업과정을 분석·평가하고 그 결과 나타난 문제점을 수정·보완하여 다시 수업 시연을 하고 그 결과를 재분석해 보는 과정을 통하여 예비교사나 현직교사들로 하여금 특수한 교수방법을 개발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도록 도와주기 때문이다(조영남, 1993). 이러한 경향과 발맞추어 마이크로티칭에 관한 연구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 예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의사소통 및 발표, 발문 기술과 질문 기술, 피드백 기술의 효과에 관한 연구(권성호, 1996; 김석우·윤미영, 1996; 박수경·김상달·조주환, 1992; 서윤경, 2009; Benton-Kupper, 2001; Gess-Newsome & Lederman, 1990; Wilkinson, 1996),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에 관한 연구(김성재, 2011; 정태희, 2004; Brent & Thomson, 1996), 교수기술 역량 향상에 관한 연구(강동수, 1989; 구정모, 2004; 박수경, 1992; 손연아·신종란·민병비, 2007; Allen & Ryan, 1969; Borg, Morris & Friebe, 1969; Davis, 1970; McDonald & Allen, 1967; Morse & Davis, 1970; Yuany, 1978), 교수방법에 대한 예비교사의 창의력 증진 및 반성적 활동 증진에 관한 연구(김도옥, 2008; Amobi, 2005; Jerich, 1989)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연구의 대부분은 초중등학교 장면에서 예비교사를 대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는 대학교수에게는 보편화되지 않았던 지난 경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최근 들어 마이크로티칭이 각 대학에서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수와 워크숍에서 시도되고 있고 정규수업과정에도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신임교수의 강의기법과 교수법 함양을 위한 마이크로티칭에 관한 연구가 본격적으로 진행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볼 수 있다.

신임교수 시절은 교수로 첫 입문하는 과정으로 대학사회에 적응하고 교수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가는 중요한 시기이다(윤여각, 1997). 이 시기에 훌륭한 강의기법과 교수법을 함양하는 것은 성공적인 교수가 되기 위한 밑바탕을 그리는데 아주 중요한 일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신임교수에게 주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며, 마이크로티칭을 계획하는 대학당국, 구체적으로는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마이크로티칭에 참여한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면접자료를 수집하여 신임교수들이 마이크로티칭 경험을 통해 얻게 되는 의미를 탐색하였다. 이러한 의미 탐색을 통해 마이크로티칭 참여자인 신임교수들의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인식과 어려움을 알아보고, 향후 마이크로티칭의 효과적인 실행에 도움이 될 의미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들은 2011년 5월부터 12월까지 총 8개월 동안 부산시 소재의 D대학에서 마이크로티칭에 참여한 신임교수이며, 이들은 연구자로부터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 전반적인 진행 절차 등의 설명을 들은 후 본 연구의 참여와 정보제공에 동의한 교수로 총 11명이다.

연구대상자들은 재직기간 3년 미만으로 여성 6명, 남성 5명으로 구성되었으며, 연령대는 30대

초반에서 40대 초반이다. 강의 형태별로 살펴보면, 6명은 이론 강의에 해당하며, 5명은 이론과 실기를 병행한 강의로 구분된다.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는 <표 1>과 같다.

<표 1> 연구대상자 정보

| 대상자 | 성별 | 연령 | 학과 | 강의 교과목 | 강의 형태 |
|-----|----|----|------------|------------|----------|
| 박교수 | 여 | 40 | 식품영양 | 생리학 | 이론 |
| 김교수 | 여 | 33 | 보건의료행정 | 사회복지개론 | 이론 |
| 조교수 | 여 | 40 | 사회복지 | 아동안전관리 | 이론 |
| 민교수 | 남 | 40 | 금융경영 | 증권시장론 | 이론 |
| 곽교수 | 남 | 38 | 자동차 | 자동차새시 | 이론 |
| 유교수 | 남 | 48 | 호텔관광 | 여행사경영 | 이론 |
| 강교수 | 여 | 48 | 유아교육 | 유아동작교육 | 이론 실기 |
| 정교수 | 여 | 39 | 유아교육 | 언어지도 | 이론 실기 |
| 황교수 | 남 | 40 | 게임컨설팅 | 스마트폰 프로그래밍 | 이론 실기 |
| 송교수 | 여 | 40 | 패션웨딩스타일리스트 | 예절과 대화 | 이론 실기 |
| 임교수 | 남 | 41 | 전자정보통신 | 디지털논리회로실험 | 이론 실기 |

2. 연구기간 및 절차

본 연구는 연구대상자인 신입교수들이 마이크로티칭을 신청한 2011년 5월부터 컨설팅 분석 및 결과보고서를 제출하는 2012년 2월까지 총 10개월 동안 이루어졌다. 신입교수들이 마이크로티칭에 참가하는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대상자들은 교과목명, 강의형태, 강

의 장소 등의 항목이 포함된 마이크로티칭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제출한 후, 센터장과 개별상담을 통해 강의촬영에 대한 구체적인 협의 및 마이크로티칭 체크리스트 항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둘째, 연구대상자들의 강의촬영은 마이크로티칭 참가 신청서에 따라 본인이 희망한 강의실에서 50분 단위 실제 수업을 편집 없이 그대로 촬영되었으며, 촬영은 교수학습지원센터 연구교수 1명과 연구자 1명의 참석 하에 이루어졌다.

셋째, 연구대상자들은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 본인의 강의 동영상(50분 촬영)과 마이크로티칭 체크리스트 결과와 총평 그리고 컨설팅 내용을 제공받았다. 강의촬영에 대한 분석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센터장과 개별면담을 통해 이루어졌다.

마지막으로 연구대상자들은 마이크로티칭 체크리스트 결과와 총평 그리고 컨설팅 내용을 다음의 수업에 반영하는 과정을 거쳤으며, 그 이후 수업 변화에 대한 자기반성적 저널을 작성하여 교수학습지원센터에 제출하였다.

이러한 전반적 절차는 <표 2>에 나타나 있다.

<표 2> 마이크로티칭 절차

| 단계/시기 | 내용 |
|---------------------------|--|
| 신청 및 협의/ 2011. 4.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크로티칭 참여 신청서 (교과목명, 강의형태, 촬영일자, 강의 장소, 매체)제출 촬영일자 및 장소 확정 |
| 마이크로티칭 소개/ 2011.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크로티칭 전반적 절차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항목 및 작성 방법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활용법 |
| 비디오 촬영/ 2011. 5.~6.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비디오 촬영 |
| 비디오 분석 결과 안내/ 2011.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마이크로티칭 분석결과 제공 분석결과에 따른 자기평가 면담 실시 |
| 비디오 분석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수업에 결과 반영 |

| | |
|-------------------------------------|---|
| 결과 반영/ 2011. 9.~1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반성적 저널 작성 •개별면담 |
| 결과 보고서 작성/2011. 12. ~2012.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동영상, 강의컨설팅 체크리스트, 반성적 저널 |

본 연구에서는 신입교수의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강의 경험에 대한 의미를 탐색해 보기 위해 질적 연구방법으로 접근하였다. 각 연구대상에 따라 1~2시간 정도의 개별적 심층면담(ethnographic interview)을 주 연구방법으로 하였으며, 필요에 따라 전화면담이나 E-mail(인터넷 실시간 대화)을 통한 면담도 실시하였다.

면담은 신입교수의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하고자 개방적 질문과 반구조화된 질문을 혼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이러한 방식을 채택한 이유는 연구자와 연구대상자가 상호 협력하여 면담을 만들어갈 수 있고 면담자가 자신의 이야기를 자신의 방식으로 소개하도록 유도할 수 있기 때문이다(윤택림, 2004; 조용환, 2000).

연구대상자와의 면담은 각각 총 3~4회씩 이루어졌다. 첫 만남에서는 연구의 취지를 설명하고 면담 일정을 잡는 등 주로 레포 형성을 위한 시간을 가졌고, 두 번째 만남부터 본격적인 면담을 실시하였다. 면담 내용은 사전 동의를 얻어 녹음하고 면담이 끝난 후 본 연구자에 의해 전사(transcribe)되었다. 추가적인 자료가 필요할 때는 전화를 통하여 면담을 하기도 했다.

면담형식은 처음에는 비구조적이고 개방적인 면담으로 시작하여 문제가 어느 정도 구체화되면 미리 준비한 구조적인 면담지를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면담은 크게 3단계 즉, 마이크로티칭이 실시되기 전, 실시 후, 결과 반영 후로 나누어 진행하였으며, 면담소요시간은 약 40분 정도였으며, 연구대상자와 연구자간의 시간을 조절하여 주로 점심시간이나 모든 강의를 마무리되는 오후 시간대에 자유롭게 이루어졌다. 이를 정리하면 <표 3>과 같다.

<표 3> 면담 과정 및 내용

| 단계 /시기 | 내 용 |
|-------------------------------------|---|
| 강의 촬영 전 /2011. 4. ~5.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연구목적, 진행방법, 기간 안내 •마이크로티칭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절차 안내 •자가진단체크리스트 문항을 살펴보고, 자신의 강의 장점과 개선하고자 하는 점, 자신의 강의촬영 시 바라는 점 |
| 강의 촬영 후/ 2011. 6. ~8. | <ul style="list-style-type: none"> •강의동영상 및 컨설팅 결과 안내 •강의촬영동영상 자가분석 및 컨설팅 결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 자신이 발견한 강의 장점, 가장 개선되어야 할 점, 기타 |
| 결과반영 /2011. 12. ~ 2012. 2. | <ul style="list-style-type: none"> •컨설팅 결과 반영에 대한 자기평가서, 반성적 저널 제출 •컨설팅 결과를 수업에 직접 반영해 본 후 자신의 생각, 강의에 도움이 된 점, 힘들었던 점, 교수법 개선에 대한 지원체계나 요구사항 |

본 연구를 위해 연구자는 연구대상자인 신입교수의 강의촬영 시 연구대상자와 교수학습지원센터의 동의를 얻어 참여관찰(participant observation)을 하기도 하였다. 참여관찰은 신입교수 5명의 실제 강의촬영 시 각 1회씩 실시하였으며, 관찰된 내용은 현장기록노트(fieldnote)에 기록하였으나, 면담을 위한 선행 작업으로서의 의미로 사용하였으며, 관찰 후 그 행동에 대한 추가 면담을 위한 자료로 활용하였다.

3. 자료수집

2011년 5월부터 2012년 2월까지 연구대상자들의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심층면담, 참여관찰 외 강의촬영동영상, 강의컨설팅체크리스트, 연구대상자의 반성적 저널 등의 자료를 순차적으로 수집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데이터 수집과정은 자료의 타당도와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가능한 한 다면적인 자료를 수집해야 한다는 Creswell(1994)의 논지를 반영한 것이다.

가. 강의촬영동영상

강의촬영동영상은 연구대상자들의 강의를 마이크로티칭용으로 촬영한 것으로 연구자와 연구대상자와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에 대한 느낌을 공유하거나 연구자와 면담 시 자신의 느낀 점, 새롭게 발견 한 점, 노력한 점, 개선할 점 등을 이야기할 때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나. 강의컨설팅 체크리스트

강의컨설팅 체크리스트의 구체적인 문항 내용은 다음 <표 4>와 같다.

<표 4> 강의컨설팅 체크리스트 문항 분석

| 영역 | 내용 | 문항 수 |
|----------|---|------|
| 언어적 측면 | 목소리 크기, 속도, 변화(장단, 고저), 발음, 목소리에 열정과 자신감 유무, 불필요한 언어적 습관 유무 등 | 6 |
| 몸동작 | 서 있는 자세, 서 있는 자리의 이동, 시선, 효과적 몸동작, 불필요한 몸동작 유무 등 | 5 |
| 수업 준비도 | 강의실 정시 도착, 단정한 복장, 교수매체 점검 등 | 3 |
| 강의 진행 | 강의에 대한 열의, 속도, 수업진행 방식, 학생참여유도, 학생의 동기과 흥미 유도 등 | 5 |
| 강의 구성 | 강의목표전달, 수업내용에 관한 전체 개요 안내, 지난 강의내용과 연관성, 강의 진행 과정의 체계성, 과제 제시 등 | 8 |
| 교수매체 활용 | 교수매체선정, 활용, 방법, 시간, 매체와 자료의 연계, 매체 활용 능력 등 | 6 |
| 학생들과의 관계 | 학생들의 의견에 대한 반응, 질문, 참여 유도, 수업진행방법, 지식과 경험 공유 유도 등 | 10 |

강의촬영동영상을 비롯한 강의컨설팅 체크리스트는 연구자가 마이크로티칭 컨설팅 결과를 이해하고 연구대상자들의 입장을 잘 해석할 수 있는 보조 자료로 활용되었다.

다. 반성적 저널

교사들의 수업전문성 향상을 위한 반성적 수업 분석에는 저널쓰기, 자신이 경험한 이야기 쓰기, 현장 연구, 민속학적 연구, 동료와의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기회 제공 등이 해당된다(유신영, 2005). 특히 수업분석방법 중 저널쓰기는 자기분석과 반성적 사고를 위해 학습과정을 기록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하나의 체계적인 방법으로 교사들에게 신념을 갖게 해주며, 지식을 확고히 구축하게 도와줄 뿐 아니라 감정과 사고 사이의 내적인 대화를 가능하게 해 준다(석은조, 2006).

본 연구대상자들은 먼저, 강의촬영이 모두 끝난 후 촬영된 동영상을 보며 스스로 자신의 강의를 점검하며 피드백 받은 내용을 토대로 반성적 저널쓰기를 하였다. 그 다음으로 마이크로티칭 컨설팅 결과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졌고, 마지막으로 컨설팅 결과를 다음 강의에 직접 반영해 본 후 각 2주간의 시간적 여유를 두고 반성적 저널쓰기를 하였다. 이때는 강의태도, 목표에 맞는 강의계획, 매체의 적절한 활용 여부, 강의의 전개방법의 적절성 등에 대해 동료교수나 교수학습지원센터에서 제공한 컨설팅 결과나 피드백에 대한 자신의 생각, 느낌 등에 대해 자유롭게 작성하였다.

<표 5> 자료수집 방법 및 생성된 자료의 목록

| 자료수집 유형 | 사용된 방법과 자료 | 수집된 자료 |
|---------------------|--|-----------------------|
| 개별면담, 전화면담 E-mail면담 | 개별 심층면담을 하고 필요에 따라 전화면담 및 E-mail을 통한 면담 실시 | 면담노트, 녹음자료, 주고받은 서신자료 |
| 참여관찰 | 연구대상자들이 강의 촬영하는 과정을 관찰 | 메모자료, 현장노트 |
| 반성적 저널 | 강의촬영 후, 컨설팅을 통한 피드백을 받은 후 1인당 2~3회 작성 | 저널자료 |
| 강의촬영 동영상/강의 컨설팅 | 개별 심층면담을 위한 보조 자료로 활용함 | 강의촬영 동영상, 체크리스트 총평 |

4. 자료분석

본 연구에서의 자료분석은 연구대상자들의 개별면담이나 전화면담 시 메모한 노트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텍스트로 옮긴 전사본 및 E-mail 면담 시의 서신자료, 동영상 촬영 과정에 참여 관찰한 현장노트, 반성적 저널, 강의촬영동영상 및 강의 컨설팅 등의 자료를 토대로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 수집된 자료들은 질적 분석의 일반적 절차에 따라 전사(transcription), 주제별 코딩(coding) 적용, 주제 또는 의미 생성의 세 가지 과정을 통해 분석하였다(Bogdan & Biklen, 2006). 개방 코딩(open coding)은 수집한 자료에 담긴 내용의 표면적 의미와 내면적 의미를 파악하여 각 의미에 이름을 붙이고, 다른 자료와의 유사성과 차이점을 비교하면서 개념을 추출하였으며, 추출한 개념은 유사개념끼리 묶어 범주화하였다.

즉, 자료들의 반복적 읽기를 통하여 새로운 아이디어를 주는 자료와 그렇지 않은 자료로 구분하고, 의미 있는 단어를 추출하여 그 내용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용어로 명칭을 부여하였다. 또한, 자료를 범주화하여 반복적인 주제들을 발견하게 되는 심층코딩의 과정(김영천, 2006)을 거쳤다.

연구자는 전사본을 반복적으로 정독하였고, 어려운 점을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에 크게 동그라미 표시로 가려내고, 그 면담 내용 안에서 주제를 찾아내어 가장 의미가 분명히 드러나는 문장에 밑줄을 긋고 그 주제를 요약할 수 있는 적절한 제목을 붙이는 예비 범주 작업을 실시했다.

다음으로, 분석될 주제 영역을 범주화하면서 그 분류항목들을 발전시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이 때 'Cut-n-Paste' 방식으로 전사지를 관련성 있는 유사한 내용끼리 가위로 오려서 분류하고, 제목으로 사용될 적합한 범주를 만들었다. 이러한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 주제범주를 수정·보완하여 분류된 각 주제에 대해 적절한 명칭을 부여함으로써 신입교수에게 마이크로티칭이 주는 의

미를 도출하였다.

수집된 자료들을 자유롭게 읽어가면서 드러난 주제는 신입교수들이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발견하게 된 자신의 모습, 마이크로티칭의 장단점, 마이크로티칭의 효과 및 어려움, 제언 등이었다. 그러나 본 연구의 주제인 신입교수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의 의미를 파악해보기 위한 연구의 초점을 다시 한 번 환기하고, 반복적 읽기를 통해 본 연구의 의미에 부합하는 주제들로 압축하였다.

자료 분석과정에서 타당성을 높이기 위하여 몇 가지 작업을 진행하였다. 첫째, 자료원에 대한 삼각측정(Data triangulation)으로, 연구 자료를 개별면담, 강의촬영동영상 파일, 반성적 저널, 전화면담 등을 통해 연구에 대한 이해를 보다 정확하게 하고자 하였다. 둘째, 연구자가 직접 수집한 면담 자료, 연구자 노트 등과 같은 참조자료를 활용하여 지나간 기억과 인간의 오감이 가질 수 있는 주관성을 극소화(김영천, 2006)시켰다. 셋째, 연구 참여자에 의한 연구결과의 평가 작업(Member Check)으로, 연구자의 분석과 해석을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주어 연구 참여자의 확인 작업을 끊임없이 거치는(Lincoln & Guba, 1985) 노력을 통해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연구자간 삼각측정(investigator triangulation)(Mathison, 1988)으로, 본 연구의 공동 연구자들이 같이 자료를 분석하고 이해함으로써 보다 더 신뢰성 있는 자료분석 및 해석이 가능했다. 분석범주를 표로 나타낸 결과는 다음 <표 6>과 같다.

<표 6> 분석범주

| | 상위범주 | 하위범주 |
|----------------------|-----------------------|----------------------------------|
| 강의 경험 의미 분석 | 마이크로티 칭에 대한 인식 | 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업무 강의능력을 평가하는 도구 |
| | 마이크로티 칭이 주는 어려움 | 나의 실제와 직면하기 마이크로티칭 결과 수용하기 |

| | | |
|-------------|---------------|---|
| 강의 경험 의미 분석 |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변화 | 교수자에서 학생으로의 관점 변화 스스로 나의 틀 깨기 |
| | 마이크로티칭을 위한 제언 | 인식의 변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 평가중심에서 발전중심으로의 컨설팅 |

Ⅲ. 결과 및 해석

신입교수의 마이크로티칭 경험의 의미는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인식, 마이크로티칭이 주는 어려움, 그리고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변화, 마이크로티칭을 위한 제언 등 크게 네 가지로 나타났다.

1.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인식

가. 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업무

연구대상자들은 마이크로티칭에 참여하는 것이 부담스러운 일이긴 하나, 대학에서 신입교수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하나의 규정이기 때문에 개인의 자발적 의지와는 관계없이 해야만 하는 업무 중 하나라고 하였다.

개인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을 느껴서 자율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학교 규정이 그렇고 또 해야 한다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신청서를 제출한 거죠. 지금 학교 전체일도 그렇고 학과일 익히기도 바쁜데... 솔직히 육체적으로 심리적으로 많이 부담스러운 일이에요. (2011년 5월, 강교수 면담)

제가 여기 임용되기 전에 시간강사로 있을 때 다른 대학에서 잠시 경험 해 본 적이 있어요. 요즘은 신입교수를 대상으로 워크숍이나 연수에서도 교수법 개선 측면에서 에 대한 주제로 많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신입교수가 되었으니까 해야 하는 중요한 업무라고 받아들여요. (2011년 4월, 김교수 면담)

대학주최로 실시하는 것이고 또 주 대상자가 신입교수니까 의무사항인거죠. 저 고유영역이라 생각했던 강의실과 강의모습을 노출시키고 학생 아닌 외부인이 들어온다는 것 자체가 상당한 부담인 것 같아요. 강의를 자유로워야 하는데 촬영까지 한다고 하니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취지에 대해 이해는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만스럽고 부정적인 생각이 강하게 들었던 건 사실이에요. (2011년 6월, 조교수 면담)

이처럼 신입교수들은 마이크로티칭이 여전히 부담스럽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대학규정에 의해 어쩔 수 없이 의무적으로 해야만 하는 업무로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특히 신입교수로서 대학의 다양하고 새로운 업무를 익히고 수행해야만 하는 바쁜 상황적 조건에서 마이크로티칭은 또 다른 심리적·육체적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입장임을 밝혔다.

나. 강의능력을 평가하는 도구

신입교수 대부분은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자신의 강의 모습이 다른 사람에게 그대로 노출되고, 자신의 강의능력에 대한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과 두려움마저 느끼게 된다는 불편한 속내를 드러내었다.

제 강의 모습을 숨기고 싶기 보다는 드러내기가 꺼려지는 심정이라고 하는 것이 정확할 것 같아요. 저 강의를 어떻게 보일지 혹시나 평가가 좋지 않으면 어떡하나? 하는 등 상당히 부담스럽고 고민스러워요. 타인으로부터 평가를 받는다는 그 자체가 일단 큰 짐을 하나 더 어깨에 얹는 것처럼 엄청난 부담이잖아요. 거기다가 카메라 앞에서 얼마나 강의를 자연스럽게 진행될 수 있을지, 우리 학생들이 잘 따라서 해 줄지도 걱정되고 무엇보다 이러한 평가결과가 혹시 재임용이나 승진에도 영향을 미치지 않을지 엄청 신경이 쓰여요. (2011년 4월, 정교수 면담)

나의 강의를 촬영해서 강의를 개선시킬 수 있

는 기회를 가지게 된다는 것과 실제 나의 강의 모습이 어떨 지에 대한 호기심과 기대감도 생기는 것은 사실이었다. 강의 시 평가가 되는 체크리스트 항목을 보니 미처 평소에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도 보여 당황스럽기도 하고...(중략)...강의촬영 한 그 수업 한 시간만 보고 그 모습이 나의 전부의 모습으로 평가될까봐 걱정스럽다. (2011년 6월, 김교수 저널)

교수자로서 또 다시 중요한 평가를 받는 것 같아요. 강의능력에 대한 점수가 나오고 서열이 세워지고, 등급이 나뉘는 평가 같아요. 평가결과에 따라 나에게 주어지는 결과가 궁금하기도 하지만 정말 부담스럽지요. 이왕 하는 거 부담은 되지만 잘해서 좋은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강의촬영 날짜와 강의내용, 수업할 학급을 정하는데도 엄청 신경이 쓰였어요. 이왕이면 좀 더 쉬운 제가 좀 더 자료도 많이 가지고 있고 자신 있는 강의 내용으로 이른 아침시간이나 점심 식사 후 시간을 피해서 학생들이 집중할 수 있는 시간에 하고, 또 좀 더 적극적인 학급을 선택하고 싶은 욕심도 생기고... (2011년 4월, 박교수 면담)

부정적 평가에 대한 두려움은 다른 사람에 의해 자신이 관찰되거나 평가받는 상황에서 발생한다(김기범·김양하, 2002). 신입교수들은 무엇보다 자신의 강의모습이 타인에게 보여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과 자신의 강의를 성공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을지에 대한 불안감을 나타냈다. 특히 촬영된 자신의 부분적인 모습이 자신의 전체적인 모습으로 평가받게 되진 않을까와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자신의 강의를 부정적으로 평가받게 되진 않을까 등을 고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신입교수들은 마이크로티칭이 신입교수로서 해야만 하는 중요한 업무이자 자신의 강의능력을 평가하는 도구가 된다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자신의 강의능력에 대한 평가가 높게 나타나게 되길 바라는 기대감과 이를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하는 강한 의지를 보이기도 하는 양가적인 입장을 보여주었다.

2. 마이크로티칭이 주는 어려움

가. 나의 실체와 직면하기

마이크로티칭은 강의의 실체를 드러내어주면서 교사로서의 역할을 이해하게 돕는다(Amboi, 2005; Hawkey, 1995; Kpanja, 2001). 신입교수들은 있는 그대로 촬영된 자신의 모습을 대하는데 있어서 매우 생소하고 어색해하였으며, 자신의 수업에 대한 환상이 무참히 깨지는 순간을 경험하게 되면서 당황한 기색을 역력히 드러내기도 하였다.

나를 객관적으로 분석해보는 새로운 경험임과 동시에 충격적 경험이었다. 나의 수업에 대한 환상이 정말 무참히 깨어지고, 평소 내가 알고 느끼고 있던 나와는 너무나 다른 모습에 많은 충격을 받았다. 비디오에 나타난 나 자신의 모습을 끝까지 지켜보기 위해서는 우선 모든 자존심의 내려놓아야 하고 또 엄청난 인내심이 필수조건인 것 같다. 얼굴표정, 말투, 몸짓 등 외적으로 드러난 모습뿐만 아니라 교과 지식 전달에만 급급한 듯 별 재미없이 정신없이 달려가고 있는 화면 속의 나의 모습이 학생들이 지금까지 보아온 모습이었구나 하고 생각하니 얼굴이 화끈거리고 부끄러웠다. 앞으로는 학생들의 입장에서 좀 더 생각해야겠다는 반성을 했다. (2012년 1월, 조교수 저널)

강의촬영이 끝나고 나면 정말 훌가분할 줄 알았는데 오히려 정반대로 복잡해진 생각과 무거워진 마음 때문에 머리가 아플 지경이었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준비한 내용도 정확하게 전달하지도 못하고, 계획은 철저히 했는데 시간도 모자라고... 특히 외모도 자꾸 눈에 거슬리더라구요. 머리모양이나 옷매무새든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얼굴인상 등 동영상 보기가 싫었어요. (2011년 7월, 박교수 면담)

평소에는 학생들에게 칭찬도 잘하고 다가가서 격려도 하는데, 카메라를 의식하게 되니 학생들이 전체에게 끌고루 눈을 맞추는 것이 여간 힘든 게 아니었어요. 평소에는 자연스럽게 제스처도 어색하고 목소리도 긴장을 해서인지 떨리기도 하고 작고...나아닌 또 다른 나를 보는 것 같아서 부끄럽고 실망스러웠어요. (2011년 7월, 민교수 면담)

신입교수들은 촬영된 자신의 적나라한 실제 모습과 직면하면서 강의의 전반적인 흐름이나 강의 내용과 방법, 구체적인 강의기술뿐만 아니라 자신의 표정, 제스처, 시선처리 등 보여지는 외관적 측면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평소 자신에 대해 몰랐던 새로운 모습과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자신에 대한 사실, 평소 본인이 생각했던 모습과 다른 실제 촬영된 모습과의 차이를 발견하게 되면서 적잖은 충격과 당혹감을 보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자신을 확인하고 새롭게 인식하면서 스스로 자신의 강의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모니터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받아들이기도 하였다.

나. 마이크로티칭 결과 수용하기

대학 교수에게는 교육자, 연구자, 봉사자로서의 역할이 요구된다. 특히 이 가운데 교육 기관에 근무하는 교수로서의 핵심적 역할은 바로 교육자로서의 역할이라 할 수 있다. 교육자로서의 역할 가운데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담당 과목을 가르치는 능력, 즉 교수의 강의 능력일 것이다. 또한 이러한 강의는 결국 대학교육의 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신입교수들은 마이크로티칭 컨설팅 결과를 수용하는데 있어 대부분 긍정적으로 수용하면서 앞으로 자신이 개선해야 할 부분으로 받아들였으나, 한편으로는 자신의 수업을 타인에게 노출시켜 받게 된 평가 결과이기에 아주 사소한 지적에서도 교수자로서의 강의능력이나 실력에 대한 질책으로 느껴져 무척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고 하

였다.

동영상을 시간을 두고 봤어요. 처음엔 도저히 못 보겠던데요... 저 스스로 동영상 촬영한 것만 봐도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컨설팅 결과를 보니 훨씬 객관적이고, 제가 개선해야 할 점이 항목에 따라 구체적으로 피드백을 받은 것 같아 도움이 되었어요. 앞으로도 이러한 컨설팅이 전문적으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 같아요. (2011년 8월, 강교수 면담)

제 강의는 실기가 주로 많이 이루어지는데 솔직히 물리적인 환경 상황이 좋은 편이 아니라 제한이 많거든요. 그러다보니 제 의지와는 상관없이 욕심만큼 실기 강의를 잘 진행하기란 어렵지요. 이런 경우는 개인적인 측면이 아니라 물리적인 환경으로 인한 것이라 사실 결과에 당연히 불만이 생길 수밖에요. 평가 시에는 실기에 대한 체크리스트 항목이 교과목의 특성에 따라 좀 더 세부적으로 제시가 되어야 할 것 같고, 특히 부득이한 환경적 요소들도 참조가 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2011년 7월, 박교수 면담)

열심히 준비했는데 촬영하는 당일 학생들의 지각이나 결석 등 여러 요소들로 인해 수업이 굉장히 산만했어요. 또 학생들이 카메라를 의식해서인지 평소보다 다른 행동들도 하고...또 학교행사며 공휴일이 많아서 제 과목에 진도가 좀 늦었거든요. 이런 여러 가지 요인들이 절 더 여유 없게 만들었던 것 같아요. 항상 주변 여러 변수에 대비는 해야 하지만 마이크로티칭 컨설턴트가 이러한 상황을 얼마나 이해할지, 전반적인 제 사정에 대한 이해가 없는 상태에서 단순히 화면에 비친 제 모습만보고 평가하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해요. 평소의 제 수업과는 다른 면이 촬영된 것 같아 쉽게 결과도 수용하기가 사실 힘든 부분도 있어요. (2011년 8월, 강교수 면담)

이처럼 신입교수들은 촬영당일 일어나는 여러

가지 상황적인 조건으로 인해 자신의 평소 실력을 충분히 발휘하지 못한 것과 자신이 판단하기에 만족스럽지 못했던 자신의 강의가 마이크로티칭 평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생각에 아쉬움과 속상함을 표현하기도 하였다. 즉, 촬영영상이 분석될 때 컨설턴트의 촬영상황이나 배경에 대한 이해 정도나 사전 지식 정도 또는 경험의 유사성에 따라 이해도와 감정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기에 화면에 비친 모습만으로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러한 요소들이 차후 마이크로티칭 컨설팅이 이루어질 때 참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램을 나타내었다.

3.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변화

가. 교수자에서 학생으로의 관점 변화

신임교수들은 촬영된 자신의 모습을 모니터링하고 강의 컨설팅을 받는 과정을 통하여 자신의 강의 목소리 크기와 속도, 몸동작과 시선처리, PPT화면구성 등 수업의 외형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동기유발과 수업진행 속도, 시간 활용의 적절성 등을 포함한 수업진행, 수업목표와 매체 활용, 수업 구성 등 수업의 본질적 측면에도 다각도로 점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촬영된 화면에는 본인의 모습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모습도 동시에 담겨있었기에 학생들의 수업참여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무엇보다 학생들의 입장과 관점에서 자신을 평가하고 판단해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고 하였다. 또한 교수자 중심의 사고와 관점으로 인해 학생들의 입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자신의 강의에 대한 반성과 동시에 미안함을 드러내기도 하였다.

내 모습이 담긴 영상을 보면서 또 컨설팅 받은 내용을 보면서 생각지도 못한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었고 교수로서의 나를 새롭게 점검하고 반성하기 시작했다. 내 강의 장면을 보면서 내가 파악한 장점은 명확한 발음과 목소리였으

나 말의 속도가 빠르고 전반적인 강의의 흐름도 역시 빠르다는 것이다. 특히 촬영 당일의 학생들의 상태나 돌발적인 행동, 주변 환경적인 상황에 따라 교육적 판단과 선택을 잘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다. 컨설팅 내용처럼 학생들의 반응을 살피면서 유연하게 진행할 수 있을 텐데. 내가 미리 준비한 강의 전략과 계획대로만 끌고 나가려고 하는 모습이 많이 보였다. (2012년 1월, 박교수 저널)

평소에 나도 잘 몰랐던 나의~쩍하는 소리 등 언어적 습관을 발견할 수 있었어요. 제가 설명을 하는데 이론과 실습을 병행하려했는데 촬영이라 정돈되지 못한 모습을 줄까봐 이론 수업과 PPT 위주로만 하다 보니 분위기가 경직되고 학생들도 지루했던 것 같아요. 무엇보다 수업을 학생의 눈에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이 생긴 것 같아서 가장 큰 발전이라고 생각해요. (2011년 7월, 황교수 면담)

평소 학생들만 산만하고 반응이 없다고 많이 나무라며 꾸중했었는데 촬영한 영상을 보니 학생들이 이해가 되면서 문제원인이 결국 저에게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저희과는 만학도가 많거든요. 은근히 제가 강하게 나가야 하겠다는 자기 방어심리가 작용했던 것 같아요. 권위적 태도, 인색한 칭찬, 학생들의 자존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학생들을 신뢰하지 못하는 말들을 무의식적으로 하는 저를 보면서 교수로서의 제 내면적 성숙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학생들에게 무척 미안하다는 생각과 나의 모든 모습들이 학생들 눈에 어떻게 비추어지는지 평소 점검이 필요하다는 것을 절실히 느꼈어요. (2011년 6월, 조교수 면담)

이처럼 신임교수들은 마이크로티칭을 마치고 난 후 촬영된 자신의 강의하는 모습과 학생들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자신의 부족한 면을 계속적으로 모니터링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특히 신임교수들은 강의에 대한 구체적인 컨설팅을 받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드러난 강의 행동뿐만 아니라 교수자로서의 내면적 마음가짐에서 부족한 점에 대한 반성과 앞으로 개선해 보고자 하는 강한 의지가 생기게 되었다는 긍정적인 정서를 표현하기도 하였다. 이는 마이크로티칭이 교수자 스스로의 자기장학 능력을 길러줄 수 있으며, 자신의 인식과 강의 행동에 관한 자기 평가를 고무시킬 수 있다고 밝힌 권성호(1996)와 김의웅(1990), Brent & Thomson(1996)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나. 나의 틀 깨기

대부분의 신입교수들은 평소 자신이 생각했던 강의 실력에 비해 비디오에 비춰진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보며 적잖은 충격과 당혹감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이러한 충격이 클수록 개선하고 싶은 결심이 더욱 더 강하게 생기게 되어 결국 자신이 고수했던 틀을 깰 수 있게 되기에 마이크로티칭의 효과는 오히려 클 수밖에 없다고 하였다.

시간강사를 할 때 몇 번 우수 교수상을 받은 경험이 있어서 강의에는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는데, 이번 강의촬영을 통해 완전히 이런 나의 생각은 무참하게 깨어졌다. 학생들의 강의평가 결과와 촬영을 통해 나 스스로를 분석해보고 컨설팅을 받은 것은 또 많이 달랐다. 늘 내가 하는 방식이 옳고 효과적이라고만 생각하고 별로 고민하지 않았던 교수방법들이 이번에는 왜? 라는 질문으로 나 스스로에게 새롭게 반문을 해 보면서 새로운 관점에서 고민해 보게 된 것 같다. (2012년 1월, 유교수 저널)

학생들에게 회유와 질책, 강압, 점수가감 등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며, 체계적으로 정리된 유인물들과 과제 제공 및 새로운 교수방법들을 제시하면서 무엇보다 학생들로부터 철저히 준비하는 능력 있고 카리스마 있는 교수로서 보여 져야 하고 학생과는 거리가 있어야 결국 교수로서의 권위가 설 수 있다는 잘못된 생각을 했었던 것 같다. 그러다보니 이러한 나의 노력에도 잘 따라주지 않는 학생들을 보면서 나의

에너지는 차츰 고갈되어갔고 지쳐가면서 스트레스를 엄청 받았던 것 같다. 이러한 나의 모습은 촬영한 영상 속의 나의 모습 속에 고스란히 묻어있었다. 학생들에게 나 자신에 대한 본심을 돌아보고, 좀 더 내 마음을 열고 다가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2012년 1월, 조교수 저널)

교수자로서 다른 교수자에게 평가받는다 것이 쉬운 일인 것만은 아니라 생각한다. 하지만 평가받는다 개념에서 벗어나 누구도 알려주지 않고 본인이 알 수 없었던 부분을 면밀히 살펴볼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중략)…나의 바뀐 모습은 수업 시작 전 지난 강의를 요약해 주기, 수업 시간 내에서 반드시 어떤 결론이 날 수 있는 만큼의 양을 가지고 하기, 강의 끝에는 당일 강의의 내용을 다시 한 번 요약 해주기, 강의 중에는 학생들에게 내가 가고 있는 방향을 자꾸 알려 주기 등을 하고 있다는 것이다. 나 스스로가 잘 할 수 있는 존재라고 믿고 나를 발전시키기 위해 교수로서 잘 가르치는 교수가 되기 위한 노력을 게을리 하지 않겠다. (2012년 1월, 민교수 저널)

이처럼 연구 대상자들은 마이크로티칭의 기법을 활용하고 컨설팅을 받은 경험은 앞으로 자신의 강의를 반성적으로 고찰하는데 큰 피드백의 역할을 해 주었으며, 자신의 장점을 더욱 강화하고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계기가 된 것에 매우 만족하는 모습이였다. 또한 앞으로 더 나은 강의를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긍정적인 자세를 보이며 마이크로티칭의 교육적 가치를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마이크로티칭 평가 과정과 그 결과의 피드백은 마이크로티칭 경험의 성공과 관련이 있으며, 반성적 사고를 통해 자기 인식의 변화를 이끌어 강의 행동을 변화시킨다는 Amobi(2005)와 Benton-Kupper(2001), Wilkinson(1996)의 주장과도 일치한다고 볼 수 있다.

4. 마이크로티칭을 위한 제언

가. 인식의 변화를 통한 자발적 참여

신임교수들은 마이크로티칭이 학교 조직이나 외부의 통제 또는 지시에 의하지 않고 교수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때 마이크로티칭의 진정한 목적인 교수법 기술 향상이라는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우선적으로 교수 스스로 강의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수업기술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대학당국에서도 교수자들이 강의개선 의욕과 실천의지를 높일 수 있도록 행정·재정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마이크로티칭을 하기 전엔 사실 부정적이었는데 하고 나서의 생각이 많이 긍정적으로 변한 것 같아요. 처음에는 억지로 해야 하는 상황적 요소도 있었고, 평가받는다든 인식도 있어서 부담 그 자체였는데 지금은 컨설팅 과정을 통해서 제 강의에 대해 분석할 수 있는 눈을 가지게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의식적으로 저 스스로의 행위를 계속 모니터링하려고 노력해요. 느껴보고 깨달아보면 아마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인식은 달라질 거라 생각해요. (2012년 9월, 조교수 저널)

의무사항이 아니었으면 부담스러워서 선뜻 용기를 내기는 어려울 것 같지만 아무리 좋은 것도 억지로 하라하면 하기 싫잖아요. 학교에서도 교수자 스스로 마이크로티칭을 원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컨설팅서비스나 행정적인 적극적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중략)… 무엇보다 교수법 개선을 위한 본인 스스로의 의식과 노력이 필요하겠지요. 더 나은 강의를 하고 싶다는 의지가 있을 때 마이크로티칭도 더 쉽게 시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1년 7월, 황교수 면담)

한편 신임교수들은 마이크로티칭이라는 과정을 통하여 교수자로서의 입장을 재인식하고, 보다 나은 강의를 위해 자신이 개선해야 할 부분에 대한 깨달음에서 구체적인 방법을 제시하기도 하는

등 스스로 자신의 강의를 깊게 드러다 볼 수 있게 되었다고 하였다. 특히 마이크로티칭 컨설팅을 받은 강의 외 또 다른 강의를 할 때 자신의 개선되어야 할 행동들이 반복되지 않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노력을 하게 된다고 말하면서 효율적 교수행동과 자기장학에 관심을 보여주었다. 또한 마이크로티칭이 앞으로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되어지기 위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서로의 생각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마이크로티칭을 통해 저 스스로 강의를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는 점과 컨설팅을 통해 개선할 점을 확실히 인식하도록 도와주는 점은 확실히 강의의 질을 높여줄 수 있다고 봐요. 어느 순간 제가 제 강의를 깊숙이 분석하면서 의식적으로 개선해야 할 행동이 지속되지 않도록 주의하려고 노력하는 걸 발견하게 돼요. …(중략)…저희처럼 신임교수뿐만 아니라 기존 교수님들께도 점검해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2012년 1월, 송교수 면담)

마이크로티칭은 수업을 하는 나 자신의 일거수 일투족을 모두 분석해 주는 것 같다. 사소한 움직임이나 말투, 표정 등 나 혼자 분석해도 분명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한다. 친한 동료교수에게도 내 동영상상을 보였는데 도움 되는 조언을 많이 받을 수 있었다.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부분이나 나의 수업 진행과 구성, 기술적인 측면에 대해서는 전문적인 컨설팅도 필요하겠지만 경력 교수님이나 동료교수들과 함께 관찰하고 피드백을 받을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되면 더욱 효과적일 것 같다. (2012년 2월, 임교수 저널)

학교에서 전체적으로 실시하는 강의평가만으로는 새롭게 시도한 교수 방법에 대한 만족도나 수업 내용과 관련한 학생의 의견을 검토하는데는 한계가 있잖아요? 획일적인 강의 평가 문항으로 제 수업에서 알고자 하는 학생들의 의견이 드러나진 않거든요. 아쉬운 점은 마이크로티칭도 강의촬영이 간간히 학생의 모습이 영

상에 나오긴 하지만 주로 교수자에게 맞춰져 있어서 학생과의 관계 측면에서는 교수자의 행동이나 말을 평가를 하기란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학생들과의 관계한 여러 부분에 대한 도움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2012년 1월, 정교수 면담)

이처럼 신입교수들은 이미 Y'Anson, Rodrigues, & Wilson(2003), Kpanja(2001), Klinzing(2002) 등의 선행연구에서 밝힌 바와 같이 마이크로티칭이 자신의 강의를 반성하고, 강의 개선이나 효과적인 강의를 학습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준다고 생각하였다. 강의의 질은 교수의 강의교과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강의기술, 그리고 열정적 마음 자세에 따라 결정된다. 이 가운데서 교수의 강의 기술은 교수 자신의 부단한 자기 연습과 모니터링, 그리고 자기장학을 통해서 향상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신입교수들은 강의를 개선할 수 있도록 강의 기법에 대한 세미나, 워크샵, 지속적인 강의 개선을 위한 마이크로티칭의 체계적 운영과 전문적 컨설팅 지원, 다양한 교수법을 효과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기대하고 있었다. 특히 동료 교수님들과의 효과적 강의에 대한 대화의 자리 마련은 동료교사간의 상호협력으로 전문성 발달을 도모하는 동료장학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곧 강의에 대한 자신감 증진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다.

나. 평가중심에서 발전중심으로의 컨설팅

신입교수들은 마이크로티칭의 목적이 교수자의 능력과 기여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승진과 같은 인사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지향적인 목적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는 우선적으로 교수자 스스로 강의를 더 잘하기 위해 강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발전지향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마이크로티칭의 목적이 교수법 개선이나 교수로서의 강의기술 신장이라는 측면에 두고 있다

고는 생각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승진이나 인사 결정이나 재임용이나 이런데 우선적으로 활용될 수 있잖아요. 평가가 좋지 못할 경우 아주 민감할 수밖에 없죠. 물론 비밀이 보장이 되겠지만, 평가결과나 면담 내용 같은 것이 '평가'를 위해 행정으로 넘겨진다던가. 이런데 대한 심리적 부담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2011년 9월, 박교수 면담)

사실 억지로 규정상 해야 하는 상황이긴 했지만, 컨설팅 과정을 거치면서, 실제적으로 제 강의 기법이 교정되고 나아질 수 있도록 강화를 받게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처음에는 제 잘못에 대한 평가와 공격으로만 느껴져 방어하는 마음이 강했는데 이젠 제가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새로운 계획이나 전략 같은 것이 세워져요. 앞으로도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마이크로티칭이 교수자를 평가하기 위한 수단으로의 방향이 아닌 지원하고자 하는 발전적인 측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교수로서의 효능감이나 자신감이 더 높아질 수 있을 거라 생각해요. (2012년 1월, 유교수 면담)

제 강의 촬영 동영상 자료를 받고 수시로 재생해서 보고, 분석하고, 반성하고 또 다른 수업에 반영해보면서 확실히 제가 나아지고 있다는 느낌에 자신감이 생겼어요. 마이크로티칭 촬영과 컨설팅 이후의 강의도 재촬영하여 컨설팅을 받을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나아지는 제 모습도 체크할 수 있어 좋을 것 같아요. 사실 처음에는 마이크로티칭을 해야 할 때 강의 영상은 고스란히 남아있게 되는데, 계속적으로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또 결과가 앞으로 어떻게 세계 영향을 미칠지 걱정스러웠어요. 그리고 컨설팅 역시 촬영배경이나 사전시기의 정도 또는 경험의 유사성에 따라 이해도와 감정은 확연히 다를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서 화면에 비친 모습만으로 그 사람을 확고하게 평가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하잖아요. (2011년 11월, 강교수 면담)

이처럼 신입교수들은 마이크로티칭이 교수자의 강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수단이기 이전에 교수자 스스로 강의를 더 잘 할 수 있도록 강의 피드백을 지원하는 측면에서 접근되어질 때, 마이크로티칭의 교육적 효과와 이에 대한 교수자들의 참여의식이 더욱 높아지게 될 것이라고 보았다.

신입교수들은 마이크로티칭을 통한 피드백 과정이 자신의 강의에 대해 잘못된 점을 들춰내고 지적하는 평가와 공격이라고 생각했던 처음의 인식이 의식적으로 자신의 강의를 계속 모니터링하게 하고, 스스로 교정해야 할 부분에 대한 정확한 인지, 개선을 위한 새로운 계획과 전략, 반성적 사고 등을 이끌어내어 결국 교수로서의 자신감을 회복시킬 수 있게 한다는 인식으로 바뀌었다고 하였다. 권성호(1996) 역시 강의촬영 화면을 모니터링해 봄으로써 교수자는 교수활동에 있어서 자신의 변화과정을 알 수 있고, 자신의 장점이나 약점, 성실성 여부, 잠재가능성 등을 스스로 인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신입교수들은 컨설팅 과정 후 다시 한 번 자신의 강의에 반영하고 재적용하는 과정을 통해 개선되어진 자신의 모습을 평가받을 수 있길 기대하는 모습도 보였다. 피드백은 학습자에게 강화요인으로서의 기능과 더불어 교정적 기능을 함께 하여 학습을 돕는다(고수일·고은정, 2004). 즉, 마이크로티칭의 피드백 과정은 신입교수들에게 정서적이고 인지적인 공감대 형성과 교수로서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높일 수 있는 역할을 해 줄 수 있을 것이다.

교수효능감은 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자신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이나 긍정적인 태도의 정도를 나타내는 것으로 교육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교수들의 교수능력에서의 개인차를 설명하고 교수학습과정의 질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강력한 변인이다(Gibson & Dembo, 1984; 장영숙·황윤세·최미숙, 2004에서 재인용)

마이크로티칭이 교수자가 교수법 기술을 개선하고 향상시켜 강의의 자신감과 효능감을 가지고

자기주도적인 교수가 될 수 있도록 돕기 위해서는 비록 자발적이지 않더라도 컨설팅 과정을 거치면서 교수자가 마이크로티칭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스스로 강의를 개선하기 위한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발전지향적 목적에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다.

IV. 논의 및 제언

본 연구는 질적 연구방법을 통해 마이크로티칭 경험이 신입교수에게 주는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며, 마이크로티칭을 계획하는 대학당국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데 있다. 이 연구결과에 대한 논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신입교수들이 갖는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면, 마이크로티칭은 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업무이며, 강의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인식하고 있었다. 이러한 이유는 자신의 강의를 평가받는다는 부담감 때문이며, 평가결과가 책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되지 않는까 하는 막연한 불안감에 의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최근 대학가에서는 강의평가 시스템이 정착되면서 우수 교원 양성으로 경쟁력 확보 및 강의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교수학습지원센터를 통해 마이크로티칭을 비롯하여 교수법 특강, 교수법 개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으며(김수영, 2010; 이기준, 2011), 우수한 교수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추세임(김상수·백웅기, 2010; 최성욱, 2010)을 고려해볼 때,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한 수업개선에 높은 관심이 모아지고 있음은 분명하다. 그러나 이와 같은 프로그램이 실시될 때 가장 고려해야 할 점은 무엇보다 교수의 자율적 결정을 인정하면서도 강의를 개선하도록 외적으로 영향을 주되, 비강제적이고 설득적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본 연구대상자들은 학교당국의 권유에 의해 비자발적으로 마이크로티칭에 참여하였기에 연구결

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마이크로티칭을 해야만 하는 부담스러운 업무임과 동시에 자신의 강의능력을 평가하는 도구로 인식하였다. 따라서 마이크로티칭 과정 그 자체가 불편한 경험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 그러나 비록 마이크로티칭의 시작은 자발적이지 않더라도 컨설팅 과정을 거치면서 교수자가 마이크로티칭의 가치를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것은 새로운 수업방식을 시도해야 한다는 일방적인 지시보다는 교수 스스로 그 방식을 통해 학습해 보는 기회를 제공해 줄 때, 교수자 스스로의 발전과 필요에 의한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으며 교육활동의 질 역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대학 규정이나 의무에 수반되는 평가적·감독적 관리기능을 전혀 도외시 할 수는 없겠으나, 지나치게 의무가 강조되고 평가적 요소가 강하다면 교수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내기 힘들 뿐 아니라 마이크로티칭의 궁극적 목표인 교육의 질 향상, 교실현장에서의 수업개선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다. 따라서 마이크로티칭을 활성화하기 위한 노력으로 교수의 자율적 참여에 대한 재정적, 행정적 지원, 교직원 상호간의 신뢰 형성, 전문성 함양을 위한 연수기회 확대, 교수 재교육 참여 확대 등 수업개선을 위한 프로그램을 통해 긍정적이고 수용적 분위기를 마련해 보는 방안 등도 고려될 수 있겠다.

이렇게 될 때, 강의와 관련하여 공통된 어려움에 직면하고 있는 교수들이 자발적으로 문제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창의적이며 효율적인 교수법을 발견하고 개발함으로써 개인의 강의 능력 향상과 교수 간 유대감 형성 및 대학 교육의 질적 향상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신입교수들이 갖는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어려움을 살펴보면, 마이크로티칭에서 드러난 자신의 실체와 직면하는 것이었으며 강의 평가 결과를 수용하는 것이었다. 신입교수들은 마이크로티칭에서 자신의 단점을 발견하게 되었고, 그 단

점이 외부로 노출되었다는 생각으로 매우 힘들어하였다. 또한 비록 대부분의 교수들은 컨설팅 내용을 긍정적으로 수용하였으나, 그 중 소수는 결과에 대해 비수용적 자세를 보이기도 하였다. 예를 들면, 긍정적인 측면에서는 컨설팅 결과가 자신의 장점과 단점을 발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해 줌과 동시에 단점을 보완하여 강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보았다.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는 자신의 의지와 관계없이 물리적, 환경적, 상황적 요소로 인해 야기된 결과를 교수자의 문제로 지적한 것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셋째, 마이크로티칭을 통해서 변화된 사항을 들어보면, 자신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며, 자신이 가지고 있던 틀에서 벗어나 보다 발전적 방향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는 것이다. 이는 신입교수들의 자기반성저널에서도 나타났듯이 자신의 강의에서 개선되어야 할 점을 구체적으로 인지하게 됨으로써 다음 강의개선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갖게 된 것으로 보인다. 즉, 마이크로티칭은 신입교수에게 끊임없는 자기반성적 의미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마이크로티칭이 교수자의 반성적 활동을 촉진시키는 유용한 도구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 Amobi(2005)를 비롯하여 Benton-Kupper(2001), l'Anson, Rodrigues, & Wilson(2003), Wilkinson(1996), Kpanja(2001), Klinzing(2002) 등의 선행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넷째, 마이크로티칭에 대한 제언으로는 신입교수들은 마이크로티칭이 학교 조직이나 외부의 통제 또는 지시에 의하지 않고 교수자 스스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분위기가 마련될 때 마이크로티칭의 진정한 목적인 교수법 기술을 향상이라는 효과가 더 높게 나타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교수 스스로 강의개선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자발적이고 주도적으로 수업기술 향상과 전문성 신장을 위해 노력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며, 학교당국에서도 교수자들이 강의개선 의욕과 실천의지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특히 마이크로티칭은 교수자의 능력과 기여도를 점수로 환산하여 승진과 같은 인사 결정에 반영하기 위한 평가지향적인 목적으로 이루어지기 보다는 우선적으로 교수자 스스로 강의를 더 잘하기 위해 강의 피드백을 얻을 수 있는 발전지향적 목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다.

조벽(2012)은 수업 컨설팅 결과가 점수로 환산되는 경우, 교수자는 수업 컨설팅의 질적 평가보다는 양적 평가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을 보이게 된다고 하였다. 즉, 높은 평가를 받은 교수자는 평가를 신뢰하고 다음 평가를 더 잘 받기 위해 노력하지만, 반대로 평가가 좋지 못한 교수자는 점수를 보는 순간 자존심도 상하고 원인을 자신 이외의 다른 원인으로 돌리려고 하며 컨설턴트에 대한 전문성과 신뢰도를 의심하면서 평가 역시 받아들이지 않는 경향이 두드러진다고 하였다. 따라서 마이크로티칭의 주된 목적이 교수자의 교수법 기술의 향상에 있다면, 무엇보다 컨설팅은 행정에서 완전히 독립되어 컨설팅 내용이나 결과가 인사 결정과는 철저히 무관해야 하며, 교수자의 비밀을 완벽하게 지켜주어서 컨설팅 내용이나 결과를 컨설턴트와 교수자 외에는 볼 수 없게 해야 할뿐만 아니라 그것이 절대로 행정실로 넘겨져서는 안 되며 무엇보다 자발적 참여가 기본이 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즉, 마이크로티칭은 교수자의 교수법 기술의 향상과 수업 개선을 선도하는 방향이 제시될 수 있어야 하며, 무엇보다 교수가 성장 지향적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동기를 유발시켜 교수자 스스로 자신이 발전해야 하는 부분을 진단하도록 유도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본 연구를 토대로 후속 연구에 도움이 될 몇 가지 제언을 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연구대상이 한 대학의 신입교수로 한정되어 있어 마이크로티칭 기법을 활용한 강의 경험을 일반화하는데 제한이 있다. 따라서, 연구대상을 신입교수 뿐만 아니라 기존 경력교수들을 대상으로 확대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본 연구에서는 마이크로티칭 기법을 활용한 강의 경험의 과정을 살펴보았는데 후속 연구에서는 신입교수 개개인의 변화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강의가 이루어진 후 단순한 자기반성일지의 작성이 아니라 강의 진행 절차 및 과정에서 어떠한 변인이 교수자 자신의 강의 개선에 영향을 끼쳤는지에 관한 구체적인 질적, 양적 분석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교수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는데, 후속연구에서는 학생 개개인의 변화를 포함한 과정 변인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겠다. 강의진행절차 및 과정에서 어떠한 변인이 학생들의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주었는지에 대한 분석도 의미 있다고 생각된다.

넷째, 마이크로티칭 컨설팅 과정 후 교수자들이 다음 강의에 반영하거나 적용해보는 절차를 통해 강의 개선점과 변화된 모습을 분석해볼 수 있도록 마이크로티칭 및 컨설팅 단계를 더 정교화 할 필요도 있다.

마지막으로 마이크로티칭을 경험한 교수자들이 갖는 긍정적 인식을 공유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할 행정 시스템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다. 마이크로티칭의 적극적 활용을 위해서는 평가적인 측면보다 교수자의 강의능력 향상, 수업에 대한 중요성 인식 등과 같은 발전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교수들의 강의능력 향상 및 강의에 대한 긍정적 신념을 갖도록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마이크로티칭 기법의 적용 외에 다양한 교수 전략과 관련된 전반적인 논의 및 연구 역시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 문헌

- 강동수(1989). 마이크로티칭 기법이 교생의 교수 기술에 미치는 영향, 국민대학교 석사학위논문.
 고수일·고은정(2004). 피드백 수용도의 결정 요인, 인적자원개발연구 6(2), 21~44.
 구정모(2004). 교수 능력 향상을 위한 교원 원격

- 연수에 마이크로티칭 기법의 적용 모형 개발, 한국교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권성호(1996). 마이크로티칭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대학생활연구* 14, 145~163.
- 권성호(1996). 마이크로티칭 시스템의 효율적 활용 방안 연구, *대학생활연구* 14, 145~163.
- 김기범·김양하(2003). 자의식적 정서로서의 부끄러움의 사회문화적 기능분석, *한국사회 및 성격심리학회 동계발표대회 및 심포지엄*, 3~13.
- 김남희(2009). 보육실습 경험을 통한 예비유아교사의 교직 전문성에 대한 인식 변화, *생태유아교육연구* 8(4), 85~114.
- 김상수·백웅기(2010). '대학가 교수 강의평가 공개제도 잇달아 도입', *헤럴드 경제*, 2010년 3월 29일자.
- 김석우·윤미영(1996). 마이크로 티칭방식의 수업장학이 교사의 발문기술에 미치는 효과, *교육연구* 6(1), 31~49.
- 김성재(2011). 마이크로티칭 기법을 활용한 수업에 따른 예비유아교사의 자기효능감 변화 탐색, *어린이문학교육연구* 12(1), 261~284.
- 김수영(2010). '지역전문대 생존경쟁 돌입', *대전일보*, 2010년 5월 28일자.
- 김영천(2006). *질적연구방법론 I*. 서울: 문음사.
- 김의웅(1990). 마이크로티칭 활동을 통한 수업기술 향상 가능성 탐색, *교육공무원교육훈련발전연구대회 자료집*, 한국교육개발원, 209~232.
- 김현자(2008). 유아교사 전문성 관련 논의의 접근방법과 내용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 13(5), 197~221.
- 박수경(1992). Microteaching 방식의 수업장학이 교육실습생의 수업기술에 미치는 효과-질문기술과 피이드백 기술을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박수경·김상달·조주환(1992). 마이크로티칭 방식의 수업장학이 지구과학과 교육실습생의 수업기술에 미치는 효과, *한국지구과학학회지* 13, 269~282.
- 서윤경(2009). 예비 교사를 대상으로 한 마이크로티칭의 효과와 운영 전략 탐색, *한국교원교육연구* 26(4), 271~297.
- 석은조(2006). 저널쓰기가 예비유아교사의 반성적 사고 자기조절학습 및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대구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손연아·신종란·민병비(2007). 생물 예비교사의 수업 시연에서 나타난 과학 수업 모형의 적용 과정 분석-마이크로 티칭 기법을 활용하여, *한국생물교육학회지* 35(3), 495~507.
- 신장미(2008). 유아교사의 교직 전문성 인식에 관한 조사 연구, *충신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신영(2005). 교사의 전문성 향상을 위한 반성적 수업분석 모형개발,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유혜령(1997). *마이크로티칭*, 서울: 문음사
- 윤여각(1997). 태극대학교 대학원생의 학문적 수월성 유지 기제에 관한 문화 기술적 사례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윤택림(2004). 문화와 역사 연구를 위한 질적 연구 방법론. 서울: 아르케.
- 이기준(2011). '공교육을 바로 세워야', *예천신문*, 2011년 3월 21일자.
- 정태희(2004). 마이크로티칭 기법을 활용한 발표수업이 대학생의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효과, *교육과정연구* 22(4), 189~208.
- 조 벽(2012). *조벽교수의 수업 컨설팅*, 서울: 해냄.
- 조영남(1993). 마이크로티칭과 교사교육-교수행동 개선을 위한 체계적 접근, *교육학연구* 31(5), 147~161
- 조용환(2000). *질적연구, 방법과 사례*, 서울: 교육과학사.
- 최성욱(2010). '강의 인센티브 '1천만원 시대'...숨 가쁜 대학교육', *교수신문*, 2010년 3월 8일자.
- Allen, D. W., & Ryan. K. A.(1969). *Microteaching*, Massachusetts: Addison-Wesley Reading.
- Amobi, F. A.(2005). Preservice teachers' reflectivity on the sequence and consequences of teaching actions in a microteaching experience, *Teacher Education Quarterly*, 52(1), 115~30.
- Benton-Kupper, J.(2001). The microteaching experience: Student perspectives, *Education*, 12J(4), 830~835.
- Bogdan, R. C., & Biklen, S. K.(2006). *Qualitative research for education: An introduction to theories and method*(5th ed.). Boston, MA: Allyn & Bacon.
- Borg, W., Kallenbach, W., Morris, M. and Friebel, A.(1969). Videotape feedback and microteaching in a teacher training model, *Journal of Experimental Education*, 37, 9~16.
- Brent, R., & Thomson, W. S.(1996). Videotaped microteaching: Bridging the gap from the

- university to the classroom, *The Teacher Educator*, 31, 238~247.
- Creswell 저, 조홍식 외 역(2005). *질적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 Davis, O. & Smoot, B.(1970). Effects on verbal teaching behaviors of beginning secondary teacher candidates' participation in a program of laboratory teaching: Laboratory observation schedule and record. *Educational Leadership*, 28, 165~169.
- Gess-Newsome, J., & Lederman, N. G.(1990). The preservice microteaching course and science.
- Gibson, S., & Dembo, M. H.(1984). Teacher efficacy: a construct validation.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76(4), 559~582.
- Hawkey, K.(1995). Learning from peers: The experience of student teachers in school-based teacher educatio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46, 175~183.
- I'Anson, J., Rodrigues, S., & Wilson, G.(2003). Mirrors, reflections and refractions: The contribution of microteaching to reflective practice, *European Journal of Teacher Education*, 26(2), 189~199.
- Jerich, K.(1989). Using a clinical supervision model for microteaching, experiences, *Action in Teacher Education*, 11, 24~32.
- Klinzing, H. G.(2002). Wie effektiv ist microteaching? Ein uberblick uber funfundreifsig jahre forschung (How effective is micro-teaching? A survey of fifty-three years of research), *Zeitschrift fur Padagogik*, 48(2), 194~214.
- Kpanja, E.(2001). A study of effect of video tape recording in microteaching training, *British Journal of Educational Technology*, 32(A), 483~486.
- Lincoln, Y. S., & Guba, E. G.(1985). *Naturalistic inquiry*, Newbury Park, CA: Sage.
- Mathison, S.(1988). Why triangulate? *Educational Researcher*, 17, 13~17.
- McDonald, F. and Allen. D.(1967). Training effects on feedback and modeling procedures on teacher performance, Stanford University; School of Education.
- Morse. K. and Davis. O.(1970). Effectiveness of teaching laboratory instruction on the questioning behaviors of beginning teacher candidates, University of Texas: Research and Development Center for Teacher Education.
- Nancy D. Bell(2007) Microteaching: What is it that is going on here? *Linguistics and Education*, 18, 24~40.
- Wilkinson, G. A.(1996). Enhancing microteaching through additional feedback from preservice administrators. *Teaching and Teacher Education*, 12(2), 211~221.

-
- 논문접수일 : 2012년 09월 11일
 - 심사완료일 : 1차 - 2012년 09월 29일
2차 - 2012년 10월 07일
 - 게재확정일 : 2012년 10월 08일